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김해숙¹, 곽희정², 국혜윤³, 임남열^{4*}

¹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²광주경찰마음동행센터, ³광주스마일센터, ⁴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ae-Sook Kim¹, Hui Jeong Gwak², Hey Un Kook³, Nam Youl Lim^{4*}

¹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²Gwangju Police Mind Health Center

³Gwangju Smile Center

⁴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Gwangju-Jeonnam Center

요약 본 연구는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를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강력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바 있는 피해자 중 성인 2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t-검증, ANOVA,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매개 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강력범죄피해자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를 수치심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수치심을 투입하는 경우 정서학대는 수치심을 통해서만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violent-crime victims.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247 adults in the integrated support organization for violent-crime victims. Subsequentl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In particular,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ildhood emotional abuse, shame, an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olent-crime victims. Notably, shame full-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dition, childhood emotional abuse affected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ly through shame.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further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s : Violent Criminal Victim, Childhood Emotional Abus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hame, Mediation

*Corresponding Author : Nam Youl Lim(Korean Center On Gambling Problems, Gwangju-Jeonnam Center)

email: mindny@gclover.or.kr

Received February 28, 2022

Accepted May 6, 2022

Revised April 13, 2022

Published May 31, 2022

1. 서론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대인 접촉의 빈도가 감소하면서 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2020년 3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폐쇄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 이탈리아는 전년도 대비 동기간 동안 전체 범죄 건수가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함으로써 노상에서 일어난 범죄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이버범죄, 혐오범죄와 같이 친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피해자의 취약성에 근거한 범죄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특히, 코로나19가 통제된 후에는 세계가 엄청난 변화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인 변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로 인한 실직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범죄의 양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1]. 이러한 예측을 감안 한다면, 우리 사회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물질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전문적·심층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2,3] 범죄 한 건당 직·간접 피해자는 7-10명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직접 피해자의 친구, 이웃, 동료들까지 피해자로 포함시키면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를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간 여성,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그 대상이 국한되어 있다가 법무부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를 지방검찰청 단위로 개소 및 운영하면서 범죄 피해자 전반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범죄 피해 후 우울, 두려움, 불면증이나 악몽, 환청,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 고립감 등을 호소한다[4]. 특히, 가해자가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재난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함께 우울, 불안, 자해, 해리, 물질남용 등의 위험한 행동에 몰두하거나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포함한 대인관계 문제 및 신체화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복합

PTSD(ComplexPTSD)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6].

범죄피해와 같은 외상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지 자원, 과거의 외상 경험 등이 있다. 특히, 과거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는 성격 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7]. 정서적 학대는 양육자가 아동을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아동의 유기불안을 자극하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정서적 필요에 무관심하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8].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안정적 애착 형성을 곤란하게 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9], 장기적으로 심리적 기능 전반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특히,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11]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수준을 높인다. 또한 정서조절 곤란[12]을 초래함으로써 성인의 생활 사건이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자원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성인기에 경험하는 충격적인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심각[13]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심각할수록 이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양육자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은 학대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자책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나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초래된다[14]. 즉, 아동기에 양육자에게 당한 학대는 자기(self) 안으로 내면화되어 개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며 개인이 처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쓸모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서로 정의될 수 있다[15].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위축, 무력감, 회피행동을 동기화하며[16] 외상 사건과 심리장애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학대에 비해 수치심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7],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기 외상과 수치심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18]. 또한 대인 외상경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도 높아진다[19]고 하였으며, 아

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분노 표현 간의 관계를 수치심이 완전 매개한다는 사실[20]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수치심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22]. 특히,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수치심과 PTSD 증상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도 분노보다 수치심이 PTSD를 보다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서적 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강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간의 관계에 수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강력범죄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은 개인 내적 심리 요인은 심리치료와 같은 개입을 통해 변화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강력범죄피해자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돕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치료적 개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 연구가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아동기 학대와 같은 과거력을 지닌 내담자를 개입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점에 대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강력범죄피해자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강력범죄피해자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력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에 등록하여 사례, 심리, 의료지원 등을 받은 바 있는 피해자 중 설문 조사에 응하

고, 연구 목적의 자료 사용에 동의한 피해자 250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중 설문의 공란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된 바, 결과적으로 24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중 남성은 41명(16.6%), 여성은 206명(83.4%)이었으며, 연령은 만 13세에서 72세 사이로 평균 33세(SD=13.41)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강력범죄피해자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사전에 알렸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기입한 개인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측정치들을 자유롭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해당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나 대상자가 서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두로 한번 더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직접 사인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사인한 경우에도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동의 철회 시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하고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2.2 측정 도구

2.2.1 아동기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과거 아동기 학대 경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25]이 개발한 척도를 이유헌[26]이 번안한 후 김은정, 김진숙[27]이 타당화한 아동기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없다)에서 4점(자주 있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27]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가 .89, 학대는 .86, 방임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신체적 학대 .84, 정서적 학대 .82, 신체적 방임 .63, 정서적 방임 .93이었다. 성적 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보다 복잡하고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최근 연구 경향에 따라 결과 분석 시 제외하였다[28].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2.2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 느낌 질문지(PFQ-2: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 2)를 사용했다. PFQ-2는 Harder와 Zelma[29]가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심종온과 이영호[30]가 변안 후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치심 문항 10개와 죄책감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종온과 이영호[30]의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가 각각 .83,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만을 사용하였다.

2.2.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Foa 등[31]이 개발한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PD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PDS-K)[32]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재경험(5문항), 회피(7문항), 증가된 각성(5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없음' 0점에서부터 일주일에 1번 1점, 2-4번 2점, 5번 이상 3점 중 선택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51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합산 점수가 0-10점은 낮은 수준, 11-20점은 중간 수준, 21점 이상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t-검증, 변량분석,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33]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206명(83.4%), 남성이 41명(16.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9세~34세(n=144, 58.3%), 35세~49세(n=61, 24.7%), 50세 이상(n=42, 17.0%)으로 19세~34세 청년이 가장 많았다. 피해를 당한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성폭력(n=93, 37.7%), 폭행(n=70, 28.3%), 살인 및 살인미수(n=35, 14.2%), 가정폭력(n=16, 6.5%), 강도(n=12, 4.9%), 방화(n=1, 0.4%), 학교폭력(n=1, 0.4%), 기타(n=19, 7.7%)였다. 성, 연령, 범죄유형에 따라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증,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t=5.22, $p < .001$), 정서학대 경험의 심각도(t=1.99, $p < .05$), 수치심(t=3.84,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에 따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2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 공선성

측정 변수인 정서학대, 외상후스트레스증상, 수치심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전체 변수들은 .85를 넘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85이상이면 다중공선성 존재).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지수(VIF)가 1.0~1.04로 10 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95~0.96으로 1에 근접하여 설명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3.3 정서학대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정서학대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수치심이 정서학대와 외상후스트레스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PSS를 활용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Hayes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 또한 활용하였다.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정서학대는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유의미한 영향($\beta = .162$, $p < .01$)을 미쳤고, 2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수치심에도 유의한 영향($\beta = .198$,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정서학대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여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심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648, p<.001$)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간접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0.1051~0.4535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7)

Variables		Response Frequency(%)	Variabels		Response Frequency(%)
Gender	Male	41(43.3)	Types of Crime	Sexual Violence	93(37.7)
	Female	206(83.4)		Assault	70(28.3)
Age	Youth (19~34yr)	144(58.3)		Murder and Attempted Murder	35(14.2)
	Middle (35~49yr)	61(24.7)		Domestic Violence	16(6.5)
	Old (50~64yr)	42(17.0)		Robbery	12(4.9)
				Arson	1(0.4)
School Violence	1(0.4)				
Etc	19(7.7)				

Table 2. A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Posttraumatic symptoms and Shame

Variables	Emotional abuse	Posttraumatic symptoms	Shame
Emotional abuse	-	.158*	.198*
Posttraumatic symptoms	.158*	-	.657**
Shame	.198*	.657**	-
M(SD)	8.67(5.32)	28.50(11.41)	20.93(12.08)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hame between Emotional abuse and Posttraumatic symptoms

step	Model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tandard error	β		
1	Emotional abuse -> Posttraumatic symptoms	.337	.136	.162	2.458	.014
$R^2=0.026, F=6.16^*$						
2	Emotional abuse -> Shame	.448	.146	.198	3.058	.002
$R^2=0.039, F=9.35^{**}$						
3	Emotional abuse -> Posttraumatic symptoms	.061	.107	.029	.568	.570
	Shame -> Posttraumatic symptoms	.595	.047	.648	12.644	.000
$R^2=0.43, F=85.17^{***}$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Emotional abuse -> Shame -> Posttraumatic symptoms		.2766		.0891	.1051	.4535

4. 논의

구타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보다 심리적 학대가 더 해로운 자극으로 지각되었다는 연구 결과[34] 비교적 오래전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여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학대 및 복잡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알려진 성학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성장 후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치심이 과거 정서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강력범죄피해자의 과거 정서학대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인인 수치심을 투입했을 때는 수치심을 통해서만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간접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이 정서학대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11], 성인의 생활사건에 대처할 자원을 제한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13]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아동기 정서 학대 경험은 성인기 강력범죄 피해와 같은 외상성 사건에 대한 대처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관성을 보인다[11]. 다만, 수치심을 투입했을 때는 정서적 학대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수치심을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국한시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치심에는 범죄유형보다는 피해자의 과거력이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기에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 받을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에는 성인기의 다양한 외상사건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범죄 피해와 같은 외상성 사건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경우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 유형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거 학대 경험 및 수치심에 대한 탐색과 평가 또한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과거 정서학대 경험,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증상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여성 피해자 지원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35] 수치심과 관련하여서는 성별의 차이에 대한 정교한 연구를 찾기가 힘든 바,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결과 수치심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강력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 언론사의 사건 관련 내용 보도 시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과거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강력범죄피해자의 특성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강력범죄피해자의 심리적 경험이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강력범죄피해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측정 변인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 피해 지속 기간이나 피해 횟수와 같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s

- [1] H. H. Park. "Social Disaster and Crime Phenomena Analysis: Focusing on crime cases and phenomena according to Corona 19,"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16, No.2, pp.69-84, 2020. DOI: <http://dx.doi.org/10.25277/KCPR.2020.16.2.69>
- [2] Z. Heidi, A. R. Alyssa, H. Alesia, E. S. Benjamin, G. K. Dean. "Losing a loved one to homicide: Preva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in a national samples of

- young adults," *Journal of Trauma Stress*. Vol.22, No.1, pp.20-27, 2009.
DOI: <https://dx.doi.org/10.1002%2Fits.20377>
- [3] L. M. Redmond. "Surviving: When someone you love was murdered," *Psychological consultations and educational services*, 1989.
- [4] S. H. Choi, Y. O. Jo.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pp.1-534, 2017.
- [5] R. C. Kessler, A. Sonnega, E. Bromet, M. Hughes, C. B. Nels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52, No.12, pp.1048-1060. 1995.
- [6] T. A. Courtois.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41, No.4, pp.412-425. 2004.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33-3204.41.4.412>
- [7] S. L. Shearer, C. P. Peters, M. S. Quaytman, R. L. Ordern. "Frequency and correlates of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histories in adult female borderline in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47, pp.214-216, 1990.
DOI: <https://doi.org/10.1176/ajp.147.2.214>
- [8] A. Shaffer, T. M. Yates, B. R. Egeland. "The relation of emotional maltreatment to early adolescent competence: Developmental processes in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Vol.33, pp.36-44. 2009.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08.12.005>
- [9] D. Cicchetti, S. L. Toth.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34, No.5, pp.541-565, 1995.
DOI: <https://doi.org/10.1097/00004583-199505000-00008>
- [10] B. Egeland. "Taking stock: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Vol.33, No.1, pp.22-26, 2009.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16/j.chiabu.2008.12.004>
- [11] A. Suzuki, L. Poon, A. Papadopoulos, V. Kumari, A. J. Cleare. "Long term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cortisol stress reactivity in adulthood and relationship to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Psychoneuroendocrinology*, Vol.50, pp.289-299. 2014.
DOI: <https://doi.org/10.1016/j.psyneuen.2014.09.007>
- [12] K. Shipman, J. Zeman, S. Penza, K. Champion. "Emotion management skills in sexually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girl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12, pp.47-62. 2000.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1036>
- [13] S. E. Ullman, H. H. Filipas. "Ethnicity and child sexual abuse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Vol.14, pp.67-89, 2005.
DOI: https://doi.org/10.1300/j070v14n03_04
- [14] S. Harter.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9.
- [15] A. Cook, J. Spinazzola, J. Ford, C. Lanktree, M. Blaustein, M. Cloitre, R. DeRosa, R. Hubbard, R. Kagan, J. Liataud, K. Malla, E. Olafson, B. van der Kolk.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Vol.35, pp.390-398, 2005.
DOI: <https://psycnet.apa.org/doi/10.3928/00485713-20050501-05>
- [16] P. Gilber, S. Allan, K. Goss, "Parental representation,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Vol.3, No.1, pp.23-34, 1996. DOI: [http://dx.doi.org/10.1002/\(SICI\)1099-0879\(199603\)3:1%3C23::AID-CPP66%3E3.0.CO;2-O](http://dx.doi.org/10.1002/(SICI)1099-0879(199603)3:1%3C23::AID-CPP66%3E3.0.CO;2-O)
- [17] E. S. Hwang, Y. H. Seong, "The Effects of Childhood Abuses on Self-Conscious Affect and Rejection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9, No.2, pp.73-89, 2006.
- [18] M. Webb, D. Heisler, S. Call, S. A. Chickering, T. A. Colgurn,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Vol. 31, pp.1143-1153, 2007.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07.09.003>
- [19] E. Y. Choi, H. N. Ahn, "Effects of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on Impaired Self-Capacities in College Women: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6, No.3, pp.285-302, 2011.
DOI: <http://doi.org/10.18205/kpa.2011.16.3.003>
- [20] H. R. Kim, H. Y. Hong, "Th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Traumatized Self-system and Internalized Sham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6, pp.321-340, 2017.
DOI: <http://doi.org/10.15703/kjc.18.6.201712.321>
- [21] J. P. Tangey, P. E. Wagner, C. Fletcher, R. Gramzow.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2, No.4, pp.669-675, 1992.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2.4.669>
- [22] B. Andrews.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4, No.4, pp.277-285,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04.2.277>
- [23] C. E. Jeon, M. H. Hyun. "The Effects of Shame, Guilt, and Social Support on PTSD in Psychological Abused Woma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2, No.4, pp.763-773, 2003.
- [24] B. Andrews, C. R. Brewin, S. Rose, M. Kirk. "Predicting PTSD Symptoms in victims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9, No.1, pp.69-73, 2000.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1-843X.109.1.69>

- [25] D. P. Bernstein, L. Fink.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1998.
- [26] Y.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terpersonal Problem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27] E. J. Kim, J. S. Kim.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3, pp.605-630. 2010.
- [28] E. J. Kim, J. S. Kim.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3, pp.605-630, 2010.
- [29] D. H. Harder, A. Zelma.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5, pp.729-745, 1990. DOI: <https://doi.org/10.1080/00223891.1990.9674108>
- [30] J. O. Shim, Y. H. Lee, "The effects of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Event Attribution 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3, pp.485-499, 2000.
- [31] E. B. Foa, L. Cashman, L. Jaycox, K. Perry.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9, No.4, pp.445-451. 1997.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1040-3590.9.4.445>
- [32] B. R. Nam, H. I. Kwon, J. H. Kwon, "Psychometric Quali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Diagnosis Scale(PDS-K),"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9, No.1, pp.147-167, 2010. DOI: <http://doi.org/10.15842/kjcp.2010.29.1.009>
- [3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4] A. E. Street, I. Arias.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Vol.16, pp.65-78.
- [35] N. Bresleu, G. C. Davis, P. Andreski, E. L. Peterson, L. R. Schultz. "Sex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Vol.149, pp.1044-1048, 1997.

김 해 숙(Hae-Sook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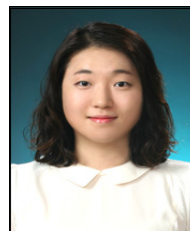
- 1998년 8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2001년 2월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9년 3월~현재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트라우마, 심리치료, 범죄심리, 임상심리

곽 희 정(Hui Jeong Gwak)

[정회원]



- 2012년 8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9년 6월 ~ 2022년 1월 : 광주 스마일센터 심리지원팀 임상심리사
- 2022년 1월~현재 : 광주경찰마음동행센터 상담사

<관심분야>

트라우마, 심리치료, 피해자지원, 임상심리

국 혜 윤(Hey Un Kook)

[정회원]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2013년 8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수료)
- 2020년 2월 ~ 현재 : 광주스마일센터 심리지원팀 임상심리사

<관심분야>

트라우마, 심리치료, 임상심리

임 남 열(Nam Youl Lim)

[정회원]



- 2005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수료)
- 2021년 9월 ~ 현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트라우마, 도박중독, 심리치료, 범죄심리, 임상심리